

중국전략

중국 경기, K형 성장→A/H 지수 엇갈림 확대

분석의 기본 가정

- 중국 A주/H주, 시가총액 비중 상위 업종 차별화
- 중국 정부, 하반기 신인프라 투자 가속화

중국전략 담당 성연주

T.02)2004-9871 /seung.yeon-ju@shinyoung.com

중국 경기, K형 성장 → A주(본토)/H주(홍콩) 엇갈림 확대

7월 들어 중국 H주 지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음.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 미국 금리 기조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A주(CSI300, 과창판50 등)와 달리 H주(항셱H지수, 항셱테크 등)는 강세. 원인은 H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경기민감 소비재(온라인플랫폼[AI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 실적개선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세 지속.

중국 소비/투자 지표 부진한데, 자동차 수출+비내구재(내수)/신인프라(AI)호조

중국 실물 경제지표 중 산업생산을 제외한 소비/투자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나, AI·수출 호조에 따라 항목별 차별화가 심화. 1월~6월 소매판매 증가율(yoy)은 +0.8%, 고정자산투자 증가율(YTD, yoy)은 -5.7%. 우선 소매판매액에서 가중치가 큰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하락세인 반면(보조금 축소), 온라인 소매판매 및 비내구재(화장품/헬스케어 등) 판매 증가율 상승세. 단, 자동차 판매는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급증세. 고정자산투자에서도 전통인프라(부동산, 도로운송 등) 투자 증가율은 하락세인 반면, 신인프라(AI, 전력, 철도, 항공운송 등) 투자 증가율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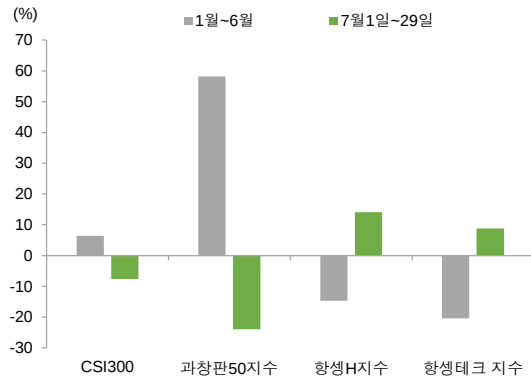
중국 A주-H주 증시 엇갈림 심화(기술주 차별화 영향)

중국 A주 기술주 지수인 '과창판50'은 AI 하드테크가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이 41% 반면, H주 기술주 지수인 '항셱테크'는 경기민감 소비재(온라인플랫폼[AI 소프트웨어], 자동차)비중이 43%로 가장 큼. 상반기 신인프라 투자 확대로 '과창판50'지수 상승폭이 컸던 반면, 7월들어 온라인 소비 증가 및 자동차 수출 호조로 2분기 기업 실적 상향조정에 따른 '항셱테크' 반등폭 확대.

중국 7월 정치국 회의 주목 - 과창판50 지수 반등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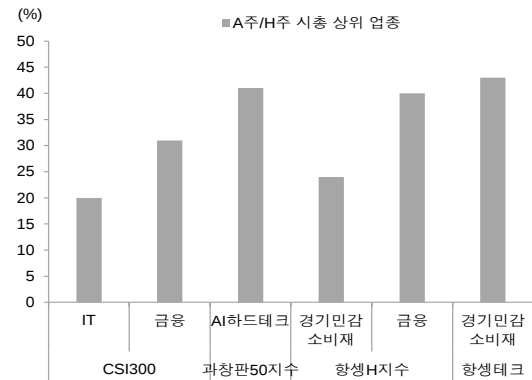
7월 단기적으로 H주 기술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A주(과창판50 지수) 반등 가능성 유효. 오는 31일 예정된 7월 정치국회의의 주목. 시장에서는 부동산, 소비부양, 통화정책(금리/지준율 인하) 등 기대하는 상황이나, 지방정부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15차5개년 핵심 인프라 정책인 6대 네트워크(六张网, 수력/신형전력/AI/차세대통신/도시지하배관/물류, 5년간 약 22조 위안 예상)투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상반기에는 재정 집행 속도가 더뎠는데 정부 기금(8,000억 위안)및 중앙 정부 예산내 투자가 하반기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도표 1. 7월 H주(HSCEI, 항셱테크) 지수 상대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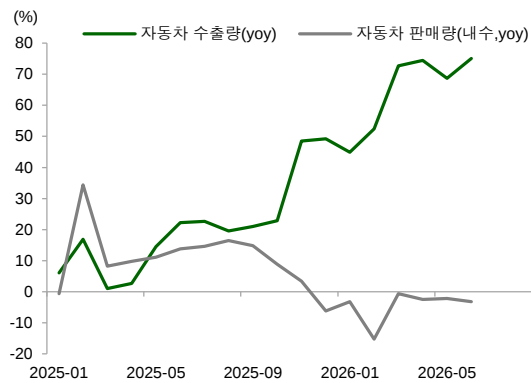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중국 A 주/H주 시가총액 비중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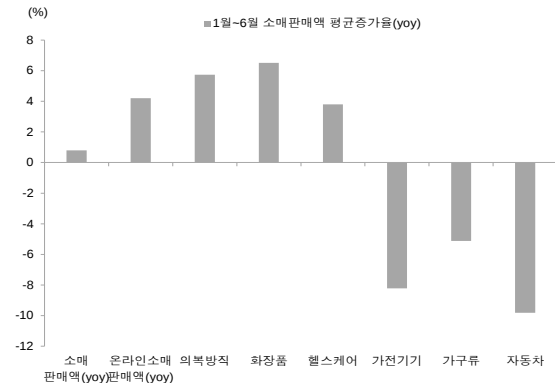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중국 자동차 수출량 증가율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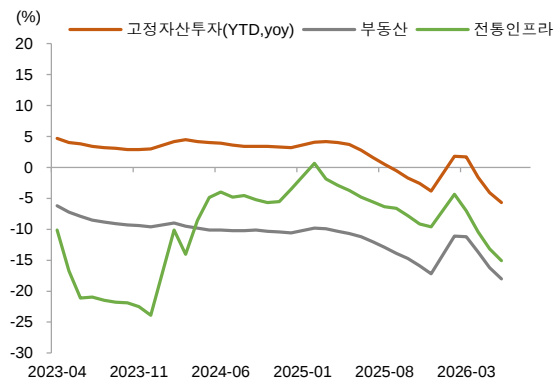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 및 비내구재(화장품/헬스케어 등) 판매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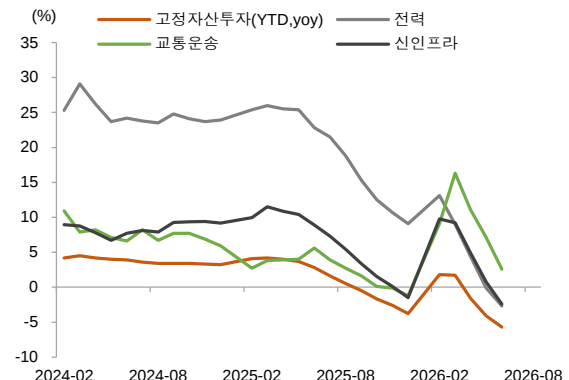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중국 부동산/전통인프라 투자 증가율 Down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중국 신인프라 투자 증가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상회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